교권수호vs적폐청산… 구호로 나뉜 조계종

8월 26일 조계사 안팎서 서로 다른 대규모법회

"종정교시 봉대" 주류세력과
직선제 · 보조비 주장한 야권
화합 없이 제 목소리 주장만

경찰벽 사이 두고 양측 대치
큰 충돌 없었지만 화합 난망

신성민 · 윤호섭 기자

설정 스님의 총무원장 사퇴 이후에도 조계종 내홍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급기야 같은 날 두 세력으로 나뉘어 한쪽은 '교권수호'를, 다른 한쪽은 '적폐청산'을 외치며 대규모 행사를 벌였다. 수백여 명의 경찰벽을 사이에 두고,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안과 밖은 정반대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집행부 "참회 · 종단안정 최우선"

먼저 조계종 집행부를 비롯한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등 주요인사들은 8월 26일 오후 1시 30분 종정 진제 스님을 증명으로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참회와 성찰, 종단 안정을 위한 교권수호 결의대회'를 봉행했다. 조계사 밖에서 진행되는 전국승려대회 맞불법회 성격으로 마련된 이 행사에는 전국에서 1만여 명(주최 측 추산)의 스님과 신도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대중은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 등 핵심 지도부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참회와 성찰을 다짐하고, 앞서 종정 진제 스님이 내린 교시를 받들어 종단 안정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은 "국민과 종도들이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지, 또 소임자들에 대해 얼마나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면서 "우리는 깊이 성찰할 것이다. 부처님 법대로 살아왔는지, 스스로 자정 능력을 길러왔는지, 정법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지 뼈를 깎는 자세로 조고각하할 것이다. 그 다짐을 이 자리서 엄숙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종회 법제분과위원장 만당 스님과 각화선원장 노현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각각 연설을 통해 △법과 제도 정비 △MBC 시청 거부 △종헌종법 등 교권수호에 나설 것을 밝혔다.

특히 총무원장 권한대행 진우 스님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지금은 비록 아프지만 한국불교가 오늘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길을 반드시 열어갈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놓지 않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면서 "종단은 하루속히 안정과 화합의 제자리를 찾아 사회와 국민의 모든 일상의 걱정을 거두고, 희망과 행복을 나누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승려대회 '한국불교 개혁' 선언

반면 조계사 맞은편에서는 국민대참회와 종단 개혁을 위한 전국승려결의대회가 봉행됐다. 당초 '전국승려대회'라는 명칭으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주최 측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결의대회'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주최 측은 그간 주장해오던 승려대회의 '초법적 권한'도 잠시 뒤로 미뤘다.

승려결의대회에는 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월암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명예대표 퇴휴 스님, 조계종을걱정하는스님들의모임 상임대표 원인 스님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200여 스님과 재가 사부대중 3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이날 월암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한국불교 개혁을 선언했다. 스님은 "현재 한국불교는 출가정신을 훼손하고, 신심 있는 불자를 욕되게 하는 등 무간지옥의 업보를 연출하고 있다"며 "철부지 아이가 흩트려 놓은 것을 치우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참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못함은 오늘날 촛불혁명 시대에 유신과 식민의 망령"이라며 "발심과 원력으로 이 결의대회에서 '한국불교 개혁'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참가 대중은 제도 개혁 결의안을 채택했다. 단상에 오른 퇴휴 스님의 결의문 동의에 참가자들은 '동의'로써 화답했다.

이를 통해 대중은 △총무원장 직선제 △비구니 스님들에게 평등한 참종권 부여 △승가복지 완전 실현 △은처 · 비리 승 퇴출 △법사제도 활성화 및 승가 개편 △중앙종회 해산 등을 결의했다. 또한 이 같은 종단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종단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정진할 것도 다짐했다.

종단 갈등 장기화 전망

이처럼 같은 날 조계종이 둘로 나뉘어 서로 반대되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종단 갈등은 앞으로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승려결의대회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초법적 권한을 갖는 '전국승려대회'라고 명명하진 않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결의대회를 통해 종단개혁을 주장할 계획이다. 특히 기회가 닿는 대로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종단 집행부와 중앙종회 측은 이를 일부세력의 불법집회로 규정하면서 종단 화합이 단시일 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종회는 오는 9월 6일 임시회를 소집해 종단을 비방하는 세력에 대처하는 '해종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찰 유휴지에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조계종—㈜한국동서발전 '재생에너지 생산' MOU

조계종이 국가 주요정책이자 사회의 제 중 하나인 '태양광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 및 보급'에 일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종단 소속사찰 유휴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사회적 공익 기여에 나설 방침이다.

조계종(총무원장 권한대행 진우)은 8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한국동서발전과 사업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조계종 소속 사찰이 보유한 유휴지에 대해 동서발전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태양광을 생산함으로써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조계종과 동서발전은 올 초부터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논의를 해왔다.


양해각서 교환 후 기념촬영 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진우 스님과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

이에 따라 조계종 사업부는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사찰을 취합하는 등 제반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동서발전은 부지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계약체결 시 자본투자, 사업시행을 위한 설계 및 조달, 시공과 운용, 대민업무 등을 책임진다.

이 자리서 진우 스님은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가 지향해 나아가야할 소중한 자원이다. 1700년의 역사를 갖춘 한국불교는 항상 환경보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일상생활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함에 따라 사찰도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좋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함께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검토할 때마다 종단과 상의해서 잘 처리하겠다. 조계종에서 큰 기회를 주신 만큼 공기업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임하겠다"며 "무엇보다 부처님께 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화답했다.

협약 이후 조계종 사업부는 종단산하 사찰 주지스님과 기관장들에게 세부적인 검토요건을 안내하고, 참여의사가 있는 곳을 취합해 생산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조계종 측에서 재무부장 유승 스님과 사업부장 승원 스님이, 동서발전 측에서 홍동표 재생에너지실장, 김진교 태양광사업부장 등이 배석했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공기업이다. 현재 430MW 규모의 친환경에너지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친환경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5%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호섭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히스클리프의 집착

집착(執着)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하니 소설 〈폭풍의 언덕〉이 떠오릅니다. 에밀리 브론테(1818~1848)가 쓴 이 소설은 주인공 히스클리프의 사랑과 증오, 분노와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광적인 집착은 자신과 이웃의 삶을 폭풍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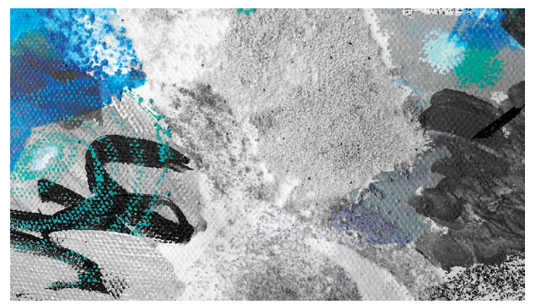
'워더링 하이츠(폭풍의 언덕)'라는 저택에 사는 언쇼는 어느 날 고아 소년을 데리고 옵니다. 그는 죽은 큰아들의 이름 히스클리프를 소년의 이름으로 주고 아들 힌들리와 딸 캐서린과 함께 키웁니다. 힌들리는 히스클리프를 괴롭히고 미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힌들리의 학대는 더욱 심했습니다. 캐서린을 사랑한 히스클리프는 참고 견딥니다. 그러나 캐서린이 대저택의 아들과 결혼을 약속하자 그는 떠났습니다. 그 후 부자가 되어 돌아온 히스클리프의 복수는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캐서린은 그에게 사랑을 고백한 후 딸을 낳고 죽습니다. 복수를 끝낸 히스클리프는 캐서린 옆에 잠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죽어서도 사랑의 끈을 놓지 못해 유령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종종 나타납니다. 마침 올해가 에밀리 브론테의 탄생 200주년입니다. 영국 문학걸작 10선으로 꼽히는 〈폭풍의 언덕〉을 소재로 집착을 공부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집착은 얽매임이고 속박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놓은 잘못된 생각에 얽매이기도 하고 주변의 모든 대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집착은 무지가 마음을 뒤덮은 현상으로 갈애(목마름) 또는 욕망이라고도 합니다. 히스클리프의 캐서린을 향한 사랑은 목마름 갈애였으며 자기를 얽어맨 속박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자 그는 분노하고 복수합니다.

집착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나'를 내세우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아집입니다. 아집에 사로잡히면 공정하지 못하고 폐쇄적이며 병이 생깁니다. '나'라는 아집병을 고치려면 '나'라는 것이 빠진 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보살의 집착은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원행입니다.


집착 그림 · 조향숙

집착은 속박 · 苦의 원인
가장나쁜 집착은 '아집'
무아 · 보시행이 무착의 길

*아집을 버리되 그 가르침과 깨달음에 집착하는 것이 법집(法執)입니다. 집착을 없애겠다는 생각조차 놓아버릴 때 법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0지 보살도 법상이 일어나면 지옥입니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존경을 기대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독립적인 나는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무아이므로 관계 속의 나만 있습니다.

나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를 하고나서 칭찬을 기대하거나 생색을 내면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착은 비움을 방해합니다.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반야 지혜입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번뇌 즉 보리'라고 했습니다. 집착의 에너지를 통찰지의 에너지로 바꾸면 보리가 나옵니다. 욕망 에너지를 무탐 · 무착 에너지로 잘 쓰면 미래가 열립니다. 불교는 그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무상 · 무아의 가르침과 8정도 · 6바라밀 수행으로 마음을 바꿀 때 나와 이웃이 함께 행복합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